

김강원 (리웹)

rewtel@naver.com

6.9 평가원만 제대로 분석해드린 주제문제는 러 맞습니다. 최소한

저 EBS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기록에 확실히 갓 공부하세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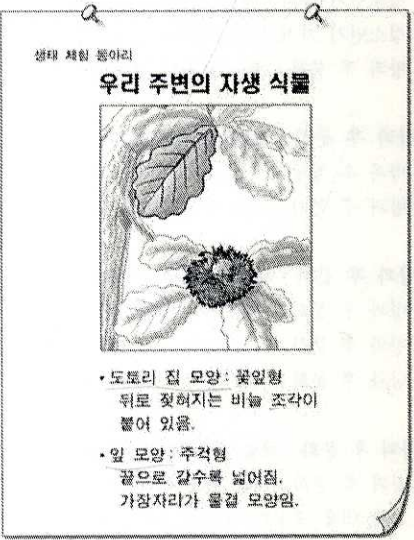
제 1 교시

언어 영역

수험생 파이팅!  
-김강원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불음)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메시에 서두르지 않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 ② 욕심을 버리고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
  - ③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수용력을 갖춰야 한다.
  - ④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⑤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불음) 발표를 위해 만든 그림판 초안이다. 대화에서 언급한 수정·보완 사항이 아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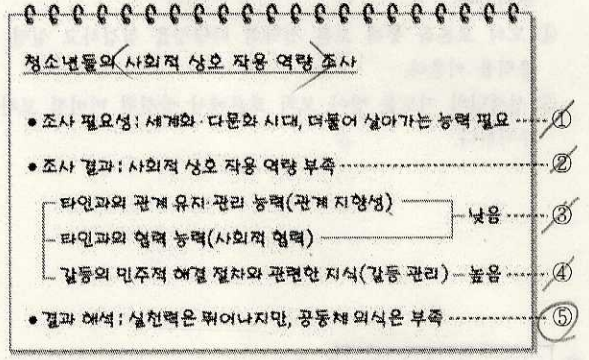
- ① 발표할 내용에 맞게 제목을 수정한다. ○
- ② 떡갈나무의 수종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
- ③ 다른 참나무의 잎과 도토리 집 그림을 삽입한다. ○
- ④ 그림 아래에 있는 정보의 순서를 조정한다. ○
- ⑤ 도토리 집 모양의 이름을 가린다. ○

\*\*\*  
수험생 두 발은  
- 적절한 것은?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중 판리하는 선사?"

3. (불음) 뉴스를 듣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침 위의 약국'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군. ○
  - ② 컴퓨터가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게 되었군.
  - ③ 장기간에 걸쳐 적정량의 약물이 전달되기 때문에 무약 효과가 높아졌군. ○
  - ④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약을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었군. ○
  - ⑤ 약물의 조절이 필요할 때 몸 밖에서 신호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더 편리해지겠군. ○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불음) 인터뷰를 들으며 메모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5. (불음) 인터뷰 내용에 대한 여학생의 반응을 평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천적 관점에서 조사 목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② 부정적 태도를 취하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한다.
  - ③ 중립적 자세로 내용을 비판하며 새로운 관점을 보여 준다.
  - ④ 공감적 태도를 보이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 ⑤ 조사 결과는 수용하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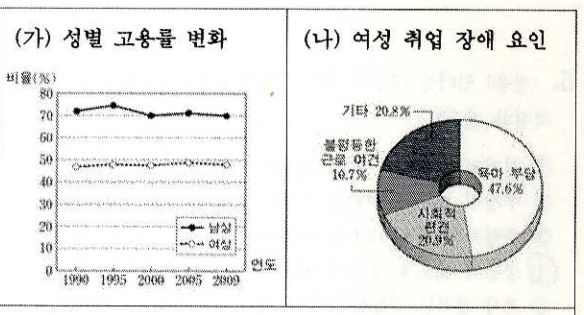
※ 쓰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제"!  
 (주제에 네모로 표시하고 풀이하세요.) 언어 영역

6. '성공적인 토론 대회 준비'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다음 인터뷰에 착안하여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Q. 이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우승 비결이 무엇인가요?  
 A. 위력적인 진진 속공이 강점인 ○○○ 선수와 팀을 이룬 것이겠죠. 견실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범실을 유도하는 저와는 찰떡궁합이었던 셈입니다.  
 Q. 그렇군요. 준비 과정이 궁금한데요.  
 A. 까다로운 강팀들의 경기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공략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습 경기 파트너로 △△ 팀을 선택했는데, 작전을 검증하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최적의 상대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출전을 앞두고는 감독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연습 경기에서 나타났던 취약점을 집중 보완했습니다.

- ① 서로의 장점이 만나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친구와 팀을 꾸린다.
- ② 상대 팀이 약체로 판단되어도 방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전력을 분석한다.
- ③ 상대 팀의 예상 논거를 분석하여 허점을 찾아내고 반박 자료를 준비한다.
- ④ 모의 토론을 통해 토론 전략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천 대응력을 키운다.
- ⑤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모의 토론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에 주력한다.

7. '여성 고용 촉진 방안'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전문가 의견  
 선진국에서는 여성들이 직장가 가정의 일을 모두 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의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금전적 지원, 휴가 정책, 보육 서비스 등의 정책을 통해 직업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 결과 노동 시장에서 여성 고용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최근 20년간 여성 고용률과 남성 고용률의 격차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을 가정, 사회, 직장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정부의 노력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성별 고용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가)에는 편견이 라는 글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8.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I. 서론	
1. 청소년기 문화·예술 체험의 중요성	
2. 청소년기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	㉠
3.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	
II.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실태	
1. 방과 후 활동의 참여도	㉡
2.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만족도	
III.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문제점	
1.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식 부족	㉢
2.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부족	
3.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비용 부담 과중	
IV.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방안	
1.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
2. 교과 내용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
V. 결론	

- ① ㉠: 논지 전개상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② ㉡: 상위 항목을 고려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도'로 수정한다.
- ③ ㉢: IV-1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신장 확대'로 대체한다. ! IV-1을 고려할 경우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적절
- ④ ㉣: III-3을 고려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 ⑤ ㉤: 주제와 III을 고려하여 '학생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수정한다. → 프로그램 부목이 le '학생요구에 기반한'은 하위의 대상 대안.



[9~10] 다음은 사진전을 관람한 후 작성한 소감문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사진전에 다녀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진전에 다녀왔다. 그 곳에서는 '빛 공해'의 실태를 보여 주고 적절한 조명을 권장하는 취지에 ㉡ 걸맞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빛 공해'란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명으로 사람과 동식물이 입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말한다.  
 ㉢ 어두워야 할 밤에 지나친 조명을 받으면 인체의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생체 리듬이 깨지며, 식물의 성장에도 장애가 된다고 한다.  
 나는 여러 작품 중 특히 도시의 건물 사이에 넘쳐 나는 조명을 용암처럼 표현한 작품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무심코 커 놓은 불빛들이 모여 도시를 끓게 하고 있었다니 ㉣.....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빛 공해'를 주제로 한 표어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진전에서 받은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나도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표어를 ㉤ 제기 하고 돌아왔다.

9.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진전의 주제가 드러나도록 ㉠은 '빛 공해 사진전에 다녀와서'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이문 규범에 맞지 않으므로 ㉡은 '걸맞은'으로 바꿔야겠어.
  - ③ 문단 구성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은 앞 문장과 연결하여 한 문단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어.
  - ④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은 '사진작가의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졌다'로 생각된 내용을 채우는 것이 좋겠어.
  - ⑤ 문맥에 적합하도록 ㉤은 '제출하고'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〇

→ '조건에 맞는 글쓰기는 조건이 주제관련 1개, 표현관련 2개로 제시됩니다. 각각에 A, B, C 표시하세요.

10. <보기>는 '표어 대회'의 조건이다. 이에 따라 작성한 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어 가치 우선 선택지 중이세요.

<보 기>  
 ○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은 것.  
 ○ 비유와 대구를 활용한 것.  
 ○ A, B, C 표시

- ① 도시를 뜨겁게 달구는 조명의 불빛  
하늘을 슬프게 헤매는 새들의 눈빛
- ② 무심코 불을 켜면 한숨 쉬는 나무들  
당신이 불을 끄면 미소 짓는 나무들 〇 〇 〇
- ③ 거리의 환한 조명으로 잠 못 드는 사람들  
당신의 손길이 편히 쉴 수 있게 해 줍니다
- ④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들의 아름다운 향연  
화려한 조명이 선물하는 사진 속의 예술
- ⑤ 별빛마저 삼켜 버린 숲길같이 따가운 불빛  
아아 그림자나! 깜깜한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

11.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는 것은?

<보 기>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동일한 '체인+격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① [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X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X 〇 ]
- ② [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〇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X ]
- ③ [ 그들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X 생략가능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〇 ]
- ④ [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〇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X ]
- ⑤ [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행상을 주셨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다. ]

→ '걸맞다'는 형용사  
 - '두편이 같아들러라'  
 - 형용사는 품사와 달리 '-는' (현재) 결합 X  
 ㉠ 이걸 물었다 하더라도  
 ㉡가 확실하게 아니  
 다른 선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12. <보기>와 같이, 밑줄 친 파생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풀어서 표현한 것은?

<보 기>  
 밤중에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잘못 디디지)

- ① 그는 눈을 치뜨고 정면을 응시하였다. (→ 가늘게 뜨고) 위로 뜨고
- ② 문이 망가져 널빤지를 덧대어 수리했다. (→ 겹쳐 대어)
- ③ 당시에 그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 안에서 끓었다) '깨' 끓었다
- ④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 붕대를 되감았다. (→ 친친 감았다) 대서 감았다
- ⑤ 동생이 가마솥 속의 팔죽을 휘젓고 있다. (→ 원형으로 젓고)  
머구 젓고



[ 현대시 + 고전시가 ]

1 각 시에 적어둔 수준으로만 미리 시를 훑는다.

2 15번 → 13번 선지 줄이기 → (나) 독해 → 14 정답 줄  
 16 " → 17 정답 줄  
 17 선지 줄이기 → 18번 (가) 독해 → 17 정답 줄

4

(가) 독해 (여기서 가만 가요 13번 정답 내용)

언어 영역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인뜻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처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맘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15번 <보기> 미리 읽어야 함.  
 누(절대자)를 추구하는 시구나!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맞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맞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친절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무뚝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닙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맞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사랑에 관한 시인데, 이런 배를 매는 것에 비유했구나!  
 - 장석남, 「배를 매며」 -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배게 말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입 계신 데 보내고져. 입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건어 놓고 공작(孔雀)을 돌려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배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白玉函)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입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뒤라서 찾아갈꼬. 가져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질로 난다. 청광(淸光)을 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저.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낮같이 만드소서.

진권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세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게는 옥루고지(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입 계신 데 쏘이고저.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 고저.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반 건어 해 서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은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러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養金)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꼬.

→ 15번 <보기> 미리 읽어야 함.  
 마음을 그워주는 내용이나!  
 \* 양금: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이런 광면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시가 과연 있을까요?? 그냥 이런 시는 나오면 답..

ps... 1. 2. 3. 5 모두 (가)에 해당 X.

(가)만 독해하고 봐도 답냄.

14.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행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미리 보기 읽기 시범!

<보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변뇌와도 같은 것이군. ○
- ③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외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 ⑤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

16.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 ③ 베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A]

베를 매면 → 구름, 빛, 시간도 함께 매어지지.  
 사랑도 하게 되면 → ?  
 ∴ '사랑이란 ~한 것이다' (속성)를 깨달음 (인식).

※            은 문화개념어/ 개념어.  
 스스로 이 문제가 된 단어들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 (나)의 '부둣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둣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둣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둣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둣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둣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수막'은 어떤 공간인가?

- ① 정박한 공간
- ② 비어있는 공간
- ③ 뉘이 깔린 것과는 대비되는 공간

↑ 그 문장에서 추론 가능하죠??

∴ 부재. 결핍의 공간.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미리 보기 읽기 시범!

<보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 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웃'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입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입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입에게 내가 주는 것.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양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은 중 하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Historiai)』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의 어원이 되는 'histor'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 이처럼 어원상 '역사'는 본래 '목격자의 증언'을 뜻했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 '진실의 탐구' 혹은 '탐구한 결과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수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과거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일리아스』였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9세기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전쟁을 통해 신들, 특히 제우스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헤로도토스는 바로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 내하고자 했다. 즉, 헤로도토스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확인·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後世人)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하여 다시 나타난다는 순환 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역사는 사람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다.

물론 모든 역사가들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역사 서술의 우선적 원칙으로 알채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런 경향은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역사를 수사학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15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고,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역사의 척도로 다시금 중시되었다.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수사학의 범위 안에서 점차 발전되어 왔다. X
- ②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였다. ○
- ③ 역사의 어원이 되는 'histor'라는 단어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지칭할 때 쓰였다. ○

- ④ 사람들이 역사를 '삶의 학교'라고 인식한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기대했기 때문이다. ○
- ⑤ 『역사』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찾았다. ○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필라르코스는 자신이 쓴 역사서에서 독자들의 동정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끌 만한 장면들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 역사가는 그런 과장된 묘사로 독자를 감동시키려고 애쓰면 안 된다. 또 비극 작가들처럼 등장인물들이 했을 법한 말을 상상하여 서술해서도 안 된다. 사실은 묘사 X

가장 가까운 서사

(나) 역사가는 무엇보다 거울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거울은 맑고 밝게 빛나며 왜곡이나 채색함이 없이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역사가가 말하는 것, 즉 사실은 스스로 말한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인 까닭이다. 가장 가까운 서사  
- 루키아노스, 『역사에 대하여』 -

(다) 과거사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미래의 일에 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 책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다. 순환사관의 서사 X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 ① (가)의 '필라르코스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을 했다고 보아야겠군. ○
- ② (나)는 역사가의 덕목인 정확성과 객관성을 '거울'로 표상하고 있군. ○
- ③ (다)의 투키디데스는 순환 사관에 입각하여 자신의 저작의 효용성을 내세우고 있군. ○
- ④ (가), (나)는 모두 과거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군. ○
- ⑤ (가), (다)는 모두 역사 서술에서 교훈성보다 설득력을 중시하고 있군. X

21. ㉠의 입장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전에만 의거해 서술했으므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 ② 신화와 전설 등의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면서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 X
- ③ 트로이 전쟁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으나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 ④ 신화적 세계관에 따른 서술로 인해 과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어렵다. ○
- ⑤ 과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은 찾을 수 없다. ○